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유학 동기와 경험 연구*

서울 A대학 석사과정 학생들의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김지훈** · 이민경***

요 약

이 연구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관심과 연구 확장의 하나로써 유학생들의 한국유학선택과 한국생활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 서울 지역 상위권 대학으로 분류되는 A대학 대학원 유학생들에 대한 자선전적 글쓰기와 심층면접을 통해 한국유학선택, 한국으로의 도착 후 겪는 적응과정과 문화적, 사회적, 개인적인 조건 변동에서 오는 경험에 대한 주관적 의미화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사회로의 유학이 개인의 진로와 삶의 기획에서 어떻게 의미화되는지, 한국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대학생활에 대한 이들의 평가와 해석은 어떠한지를 행위자의 입장에서 탐구하여 이들의 유학동기와 한국에서의 대학생활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제어: 유학생, 아시아 유학생과 서구유학생 차이, 대학 생활 경험, 세계화, 유학 동기, 유학 경험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인문한국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임(NRF-2009-362-B00018). 연구를 보조한 이민진, Mason Kamolpechara와 Timothy Monteath에게 감사한다.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HK조교수

*** 교신저자,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전임강사(minkyung0503@daegu.ac.kr)

I. 서론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양적 증가는 한국사회의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은 2009년 4월 기준으로 전국 330여 개 대학에서 75,850명까지 증가하였고, 한국대학들의 적극적인 유치정책에 힘입어 앞으로도 그 증가세는 가속화될 전망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이러한 외국 유학생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은 비단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국가정책 기조이기도 하다. 영어권 주요 유학지인 영국과 호주(Walker 2010; Bodycott 2009), 일본과 싱가포르를 비롯한 아시아권에서(Ninomiya et al. 2009; Yeoh 2007; 김지훈 2010)도 한국과 유사한 유학생 유치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오고 있는 것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20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Ninomiya et al. 2009, 117), 영국은 기존의 유학생 규모보다 2만 5천 명을 더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다(Walker 2010, 172).

한편,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는 최근 한국사회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도 매우 유의미한 인구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은 국내 외국인 인구의 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 근로자(52%), 결혼이민자(11.4%)의 뒤를 잇고 있을 만큼 인구학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숫자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¹⁾ 이러한 해외 유학생의 가시적인 증가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다문화 현상으로서 한국사회의 새로운 이방인(new stranger)에 대한 다각적인 주목과 관심을 필요로 한다.

1)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08)에 의하면,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중 외국인근로자가 575,657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52%, 결혼이민자는 125,673명(11.4%), 유학생 77,322명(7%), 국내거소신고 재외동포 43,703명(4%), 기타 외국인 103,115명(9.3%)이다(행안부 보도자료, 2008. 08. 06).

그러나 이들에 대한 기존의 관심은 정책적 차원에서 한국대학 국제화의 지표로 수단화되거나 지방대학의 학생수 감소에 따른 수입원이라는 도구적인 접근에만 머물러 있을 뿐, 이들의 이주 특성과 정착과정, 향후 진로 등 미시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은 미진했던 것이 사실이다.

유학생들의 유학국가의 경험은 졸업 후 전문기술직 이주자(Yeoh 2007)로 전환하거나 이민국가의 맥락에서는 영구 이민자로 남을 수 있는 이주의 징검다리 혹은 연결고리로 작용하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유학생들의 이주국에서의 학업 경험, 생애 경험,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과 경험은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UN 산하 세계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05)가 이주자를 1년 이상 출신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거주, 체류하는 자를 이주자로 정의하여 유학생을 주요한 이주자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고, EU나 OECD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역내 유학생의 이동과 경험에 대한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이들을 단순히 일시적 체류자가 아닌 잠재적인 중요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관심 확장의 하나로서 유학생들의 한국유학선택과 한국대학적응과정에 미시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 서울에 위치한 A대학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자선전적 글쓰기와 심층면접을 통해 한국유학선택 동기, 한국 도착 후 겪는 생활과 학습 적응과정과 문화적, 사회적, 개인적인 조건 변동에서 오는 이주 경험을 분석하였다. 유학이라는 선택은 개인적 삶의 행로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중요한 생애경험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 유학동기와 대학생활을 행위자의 관점에서 고찰하여 이들에 대한 입체적이고 심층적 이해를 시도하였다.

이주동기와 정체성의 변화, 새로운 사회적 관계의 형성, 사회적·문화적 환경의 적응과정과 유학지에 대한 평가 등은 향후 진로를 포함한 유학생들의 이주특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유학생들의 이주특성은 한국대학과 사회가 이들을 당자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외국유

학생에 대한 관점과 비전을 형성하는 데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 국내외 선행연구 고찰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연구는 크게 유학생의 이동 특성을 거시적인 시각에서 살펴보는 연구, 유학지 혹은 대학의 선택 배경, 유학생의 적응과정과 학업, 체류의 경험을 미시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로 대별할 수 있다. 본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유학 동기와 현지 적응 과정에 대한 의미있는 시사점을 주고 있는 주요한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Rosental et al.(2007)은 호주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들의 현지 사회적 연결성(social connectedness)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아시아계 유학생과 비아시아계 유학생들이 상이한 유형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아시아계 유학생의 경우, 자문화권 사람들(co-culturals)과 더 어울릴수록 현지에 더욱 사회적 연계감을 느끼는 반면, 비아시아계 유학생들은 현지 사람들(host countries)과 더 어울릴수록 사회적 연계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출신국 문화적 배경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들의 적응양상과 방식이 구별되고 있음을 밝혀내고 있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이주국에서의 사회적 관계형성이 이들의 정착과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암시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다음으로, 노르웨이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Sam(2000)의 연구는 유럽과 북미 출신의 유학생이 아시아나 아프리카 출신의 유학생보다 만족도가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유학생들 사이의 만족도에 차이를 보고하고 있어 주목된다.

또한, 중국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학대상지 선택을 탐구한 Bodycott(2009)의 연구는 중국인 학생들의 유학선택에 있어 실용주의적 가

치와 부모-자식간의 관계, 교육에 대한 투자 등 유교적 이상과 가치가 영향을 미침을 지적하고 있어 한국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의 이해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유학생의 경험에 대한 미시적인 연구는 유학 동기나 유학 동안의 경험과 체험을 파악하는 연구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Sherry et al.(2010)은 미국의 한 대학에 수학 중인 유학생의 경험에 대한 양·질적 연구방법 병행을 통해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적응과 학업수행요인을 고찰하고 있다. 위 연구결과에 의하면, 기존 유학생 관련 연구들이 지적한 언어 문제, 문화적 적응, 재정적 문제, 친구 사귀기나 사회적 도움(social support) 외에 대학 공동체(university community)의 포용적 태도(receptiveness)가 성공적인 유학생의 관건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Sherry et al., 2010, 42-44). 그동안 외국인 유학생들의 적응과 성공을 개인적 변인에 방점을 두었던 것과 비교하여 유학지 국가와 대학의 환경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적극적인 유학생유치를 추진 중인 한국대학과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영국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의 성장경로를 연구한 Gu et al.(2010)은 외국 유학생의 적응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본국에서의 언어 능력과 다양한 문화적 경험 여부, 학업능력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는 유학생들의 적응과 학업경험은 단계적이고 급격한 변화과정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복합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다시 말하면, 유학생들은 단선적이고 수동적인 변화과정이 아니라, 언어능력, 사회적 상호작용, 개인적 성숙과 학업 간의 변화가 매우 복잡성을 띠고 상호연계되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국외의 유학생관련 연구들은 주로 유학생들의 유학지에서의 적응문제와 양상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국내체류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들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유학생들의 변화과정과 성장경로를 추적하고 있는



국의 연구 동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언어나 문화적 다름으로 인한 초기 적응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의 유학생 급증이 새롭게 부각된 현실임을 감안하면 매우 자연스러운 경향이라고 보여진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언어적 적응을 돕기 위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최윤곤 2003)와 이들의 사회, 문화적응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나임순 2006)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전략적 방안과 주거 공간 등 주로 정책적 차원의 연구(노종희 2003; 주현준 2007)와 한국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과 이주과정을 다룬 양적 연구들(안영진외 2008; 안영진 2009)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유학생들에 대한 미시적 연구로서 한국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출신 유학생에 대한 연구들(조혜영 2002, 2003)이 있다. 이 연구들은 중국 동포 유학생들(조혜영 2002)을 중점적으로 다루거나, 중국 유학생들의 한류와 한국이미지 인식에 관한 연구(조혜영 2003)를 다룸으로써 유학생들 연구에 대한 세부적 관심사의 지평을 넓혀왔다.

다른 한편,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생활 적응과 어려움에 관한 논문들도 주목할 만하다. 중국유학생들의 한국생활 적응을 다룬 연구(이익수 외 2006)와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대학 초기적응에 관한 질적 탐색(권양이 2008)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와 관련하여 주휘정(2010)의 연구도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대학 학습경험을 기술하여 학습환경 및 학습의 영향요인 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교육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서울소재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학습경험을 질적방법으로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공통점을 지니지만 이 연구는 학습개선을 목적하는 한다면 외국인 대학원생들의 유학동기와 정착과정 학습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와는 구별된다.

이처럼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한국정착과정은

어떠한지, 이러한 유학경험이 어떻게 의미화되고 있는지, 향후 진로는 어떠한지, 그리고 이들의 개인적인 경험세계는 대학국제화를 추구하는 한국 사회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외국인 유학생 연구에 있어 한국사회의 협소한 경향성은 새로운 변화에 대한 초기적 관심이라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질적, 양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와 관심을 필요로 함을 보여주고 있다.

III. 연구방법과 구성

1. 연구방법

이 연구는 서울에 위치한 A대학 인문사회계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이주경험에 대한 자서전적 에세이와 이에 기반한 심층인터뷰를 해석학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질적 연구방법에 의해 분석한 것이다. 이러한 방법론은 심층면담과 질문지 작성을 병행하면서 질적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질적 연구방법중의 하나인 중다자료수집(Triangulation)에 기초한 것이다.²⁾

또한, 이 연구는 연구결과 분석을 놓고 동료들과 확인 작업을 하여 연구자의 해석에 대한 타당성 검증과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이른바 연구자 삼각측정(investigator triangulation)을 실시하였다. 이 방법은 동료 연구자의 조언과 지적을 구하여 연구 결과 분석에 대한 주관적 오류와 판단

2) 중다자료수집 방법이란 연구자가 특정 자료 수집 방법 하나만을 사용하기보다는 일련의 연구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방법, 복수의 연구자, 그리고 상이한 이론들을 이용하여 다양하고 폭넓게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연구결과의 확신성(confirmation)과 완전성(completeness)을 강조하기 위하여 상호 보완적인 방법들을 통합하여 연구결과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백옥현 2006; 정연순 · 이민정 2008).

을 보완하여 분석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확인절차(verification)라고 할 수 있다(Stake 1995). 질적연구는 연구자의 관점과 문제의식이 연구주제와 해석과정에 녹아들어갈 수 없고, 이는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대한 일각의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그러나 질적 연구결과는 연구결과의 보편성과 일반성을 전제하기보다는 오히려 맥락적 해석을 통해 개인적 경험을 재구성하며 이는 다시 사회적 의미로 확장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Mucchielli 1991; Manen 1990; 이민경 2008). 따라서 이 연구는 이러한 질적 연구방법을 염두에 두고 연구결과에 대한 타당성과 확신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서 연구자 삼각측정을 실시한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대상과 연구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10년 2학기 A대학 인문사회분야 석사과정 영어강의 과목을 수강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자신들의 교육 이주경험을 자서전적인 방법으로 써서 내게 하였고, 유학생들이 작성한 내용 중 주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주제별 분석 방법(Analyse thematique)으로 1차적으로 분석하였다(Paille & Mucchielli 2003; 이민경 2008). 자서전은 학생들에게 한국으로의 유학결정과정과 한국으로 이주 후 한국대학과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을 성찰적으로 써달라고 주문하였다. 아래 <표1>은 연구자가 학생들에게 제시한 기본적인 교육이주경험을 중심으로 한 자서전 내용구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다.

<표 1> 자서전 내용구성의 가이드라인

구성 범주	세부항목
한국 유학선택 까지의 과정	유학동기, 유학지로서의 한국선택, 학교, 전공 선택 과정과 이유, 한국 유학 오기 전 한국 혹은 다른 국가 체류 여부, 본국에서의 자신의 대학과 사회생활 등
현재까지의 한국 유학생 생활	한국 대학생활 적응(정착과정, 적응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등), 학업, 교우관계, 동아리 등(자신의 국가 커뮤니티, 한국대학생포함), 교수와의 관계, 학교안팎의 생활 동선, 유학생들 중 본국과의 관계
향후 진로와 의미화	대학졸업 후 진로와 향후 계획과 비전, 자신의 유학생생활에 대한 중간 평가, 자신이 경험한 한국과 한국인, 한국 대학생활에 대해 평가

자서전 에세이는 두 연구자가 각각 숙독하고, 분석하였으며, 분석과정을 공유하였다.

한편, 학생들이 써낸 자료는 자서전이라는 자신들의 삶을 전체적으로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글의 형식상 생애사적인 특성을 지녔지만 개인들의 생애사 중 교육이주 경험이라는 특수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개인의 전 생애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생애사 연구와는 거리가 있다.³⁾

다음으로, 교육이주경험에 자서전적 에세이에 대한 1차 분석을 바탕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은 교육이주경험 글쓰기에 드러난 주요한 테마를 중심으로 분석범주에 근거하여 맥락적이고 심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심층면담은 2010년 10-11월 두 달 동안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수행하였다. 면담과정은 연구에 대한 개략적인 안내와 설명, 기초적인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서 작성, 연구 참여 동의서의 작성 이후 약 1시간 동안 영어로 진행되었고, 모든 인터뷰 내용은 연구대상자들의 동의를 얻어 녹음되었다. 면접장소는 A대학의 캠퍼스 안의 연구실 혹은 커피전문점을 학생들이 선택하도록 한 후 선택한 장소에서 수행되었다. 면접한 녹음 내용은 전사되었고, 전사 내용은 3차례에 걸쳐 녹음 내용과 재확인절차를 거쳤다. 두 연구자가 모두 숙독하고, 분석 결과를 공유하였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거쳐, 이 연구는 자서전적 글쓰기와 심층면접에서 드러난 유학생들 내러티브에서 드러난 주요한 내용을 주제별로 범주화하여 분석한 것이다. 학생들의 교육이주 경험에 대한 자서전적인 글쓰기는 문서

3) Manen(1990, 90-91)은 인간의 행동과 태도를 연구하는 방법론에서 어떤 경험이나 현상의 본질을 탐구하고자 하는 연구에 착수하는 최고의 지름길은 선택된 개인들에게 그들의 경험을 글로 쓰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프로토콜 글쓰기”라고 명명한다. 자신의 경험을 글로 풀어내는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구 대상자들의 일정 수준 이상의 글쓰기 능력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글쓰기에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적합한 방법이 될 수 있다(이민경 2008).

로 작성한 텍스트라는 면에서 구술 자료인 심층면접과 비교해 내용과 구성상의 특수성이 존재한다. 자신의 생각과 정서를 정리된 언어로 서술한 텍스트라는 특성은 연구자 앞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풀어내는 형식인 심층면접과는 다른 맥락 속에 위치하기 때문이다(Pineau & Le Grand 2007; 이민경 2008). 따라서 이 연구는 위의 두 가지 자료수집 특성에 기반하여 자서전적인 에세이와 심층면접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각각의 장점을 살리는 동시에 서로 보완적인 연구접근 방법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한편, 이 연구는 행위자의 입장에서 이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지향하지 않는다. 이는 질적 연구가 지니는 일반적인 특성과 맥락을 같이 한다. 오히려 해석의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개별적인 경험이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되고 개인적 의미망을 넘어 타자와 공유됨으로써 사회학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이남인 2004; Manen 1990; 이민경 2008).

2.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서울에 위치한 A 대학에서 영어로 진행되는 대학원 강좌를 수강하는 석사과정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학사과정에 있는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는 차별성을 지닐 수 밖에 없다. 연구대상을 선정은 석사과정의 영어강좌를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의뢰하였고 국적이나 전공 등 특정한 범주를 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연구자가 대상으로 설정한 수강생들은 대부분 국제학 관련 세부전공을 전공하는 학생들이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이주 동기와 학업선택은 특수한 범주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본 연구대상의 주요한 특성과 한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대상자들의 전공은 국제학(국제관계, 국제통상, 국제금융) 또는 동아시아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면에서 다양한 전공자들을 포괄하고 있지는 못하다. 유학생들의 유학선택과 한국대학생활 경험 등은 전공에 따

라서도 다르게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렇지만, 이는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특히 서울지역 주요 대학에서 인문사회계 분야의 전공 선택을 반영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유학조건과 학업과정이 매우 상이한 이공계 등 다른 전공자들의 한국대학생활 경험은 또 다른 스펙트럼이 존재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 쓰인 자서전과 심층면접은 모두 영어로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의 국적과 한국체류기간 등에서는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구사능력에 있어 편차가 존재한다. 반면, 대부분이 국제학 관련 석사과정에 적을 두고 있고, 영어 능력이 입학 사정에 주요한 고려사항이었기 때문에 영어에 어느 정도 능통한 편에 속한다. 또한,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자서전은 영어로 쓰게 하였고, 면접 방식도 이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언어적 제약을 제거한다는 의미에서 이들에게 상대적으로 편안한 언어인 영어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아시아 출신 학생들과 서구권 출신 학생들의 영어 구사능력에 있어 편차가 존재하지만 글쓰기와 심층면접을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언어적 제약을 보완하려고 노력하였다. 연구결과 분석은 자서전과 인터뷰를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여 이 연구에서 인용되었음을 밝힌다.

〈표 2〉 유학생의 일반적 특성

번호	이름	성별	나이	출신국가	한국 체류기간	비고 (한국 외의 외국생활경험 등)
1	Alex	남	26	미국	1년 9개월	일본(2년)과 한국(1년)에서 영어교사
2	Brian	남	24	독일	2년 4개월	서울의 다른 대학에서 교환학생 1년
3	Christina	여	28	남미*	3개월	스페인, 핀란드, 일본에서 1-2개월의 여름학기 등 경험. 부모의 다양한 배경으로 인해 스페인 이중 국적자임
4	David**	남	20	영국	5개월	현재 교환학생
5	Edwin	남	26	필리핀	1년 4개월	중국 1년, 싱가포르 11개월 체류
6	Giang	여	34	베트남	1년 3개월	싱가포르 연수 (3개월)
7	Hua	여	23	중국	1년 2개월	지방대학에서 교환학생 1년

8	Jiao	여	23	중국	2년 2개월	지방대학에서 교환학생 1년
9	Kosal	남	28	캄보디아	2년	한국어 연수 경험
10	Lin	여	26	중국	1년 3개월	조선족
11	Mei-Xing	여	24	중국	9개월	서울의 다른 대학에서 6개월 한국어 연수, 마카오에서 학부 졸업 (영어 과정)

참고: * Christina의 국적은 남미의 한 국가이나 국적을 구체적으로 밝힐 경우 신상이 드러날 수 있어, 인터뷰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남미라고만 표기한다.

**David의 경우 학부 4학년 교환학생으로서 대학원 수업을 듣고 있는 경우이지만 자서전적 에세이와 심층면접에 모두 참가하여 본 연구대상에 포함시켰음을 밝힌다.

IV. 유학생들의 내러티브

1. 한국유학 동기와 결정과정

그동안 국제적 유학생들의 이동의 흐름은 지역적 근접성을 기반으로 주변국가에서 미국과 유럽 등 중심국가로의 이동이 주를 이루어 왔다. 이러한 일반적인 흐름은 중심국으로의 해외 유학자본을 통한 자국에서의 유리한 사회적 지위 획득이 국제적 유학을 실행하는 주요한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국경없는 고등교육체제가 형성됨에 따라 유학생들의 이동이 급증하면서 계층과 지리적 이동경로에 있어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Murpy-Lejeune 2002). 다양한 학문적 목적과 배경에 따라 주변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역방향으로의 이동이나 국가간 수평적 이동 등이 매우 확장되고 있는 것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복잡한 변화양상에도 불구하고, 자국보다 국제적 영향력을 지닌 중심국가로의 유학을 통해 보다 경쟁력 있는 학력자본을 위한 이동에의 욕구는 여전히 국제적 유학을 결정하는 매우 주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최근 한국으로 유입된 유학생들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후발주자인 아시아 출신 유학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다음에 인용하는 캄보디아 출신 유학생의 이야기는 이러한 예를 잘 드러내고 있다.

“A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나는 국제학 과정에서 높은 학업 수준을 갖추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제학 분야에서 권위 있는 대학원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저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 경제 발전에 대해 더 공부하면, 내전을 겪은 나라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를 공부할 수 있게 되어 우리나라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한국을 선택했어요. 이곳에서 공부하면서 실력을 변화시키고 향상시킴으로써 (장래 직업을 얻기 위한) 유리한 자격을 갖추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Kosal, 캄보디아)

프놈펜 왕립 대학교(Royal University of Phnom Penh)에서 역사를 전공한 캄보디아 출신인 Kosal은 한국에서의 학위를 취득하여 자국의 엘리트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는 바람을 드러냄으로써 해외 유학을 통한 학력자본 획득에 대한 유학생의 욕구를 잘 보여주고 있다. Kosal은 한국에 오기 전 캄보디아에서 소위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아 왔다. 그런 그에게 한국유학은 선진 학문을 배워 국제학 전문가로서의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생애 도전으로 의미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개도국에 해당하는 동남아시아 출신 유학생들에게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한국유학이라는 경쟁력 있는 해외학력자본을 통해 자국에서의 유리한 사회적 지위 획득에 대한 욕구를 읽게 해준다.

한편, 중국 출신 유학생들은 한국유학에 대한 양가적 입장을 가지고 있어 주목된다. 중국 출신 유학생들은 캄보디아나 베트남 등 소위 개도국 위상을 지니고 있는 동남아시아 출신 유학생들과 다른 의미화를 보여준다. 이는 자국과 한국과의 역학에 대한 판단과 전제가 동남아시아 출신 유학생들과 구별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국이나 유럽 오스트레일리아와 비교해서 한국의 학비가 저렴했어요. 제가 one child 정책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 부모님이 멀리 가는 걸 원하지 않기도 했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교육열이 매우 높으셔서 제가



한국에서 석사학위를 끝내고 일본으로 가서 박사학위를 받기를 원하세요.”(Hua, 중국)

“이곳에서의 석사학위가 중국에서 나의 첫 석사학위와 동등할 수 있을까?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많이 고민하였다. 수없이 생각을 거듭하고, 이곳의 많은 친구들과 이야기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작은 나라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냐고 물어보기도 한다.”(Lin, 중국)

중국에서 일본어 통역사로 일하시다가 현재는 다국적 기업에서 근무하는 아버지를 둔 Hua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멀리 유학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한국을 유학지로 선택했고, 해외유학은 부모님의 교육열이 매우 중요하게 작동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이 최우선 순위로 고려되었다기보다 지역적 근접성에 의한 차선택이라는 점에서도 위에서 인용한 캄보디아 출신 Kosal의 경우와 구별된다.

Lin의 경우는 한국유학에 대한 중국학생들의 양가적 감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중국의 우수대학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은 Lin는 2007년 대학원을 졸업하고 국제적 견문을 넓히고 국제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싶어 한국에 왔다. 국제관계 업무를 하는 조부의 영향으로 국제정치와 해외 업무에 관심이 많아 관련 일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어서라고 한다. 유럽으로 유학을 갈까도 고민했지만 한국계 중국인이기도 하고, 세계의 교육 순위에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매우 좋다는 것을 확인해서 선택했지만 한국대학의 규모에 실망하여 자본으로서의 한국 학위에 대해 회의감을 갖기도 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해외유학을 통한 자본획득을 통해 자국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고자 아시아 유학생들의 변을 잘 보여주고 있는 위의 언설들은 글로벌 자본 획득을 위한 국제적 유학생들의 흐름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한편,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문화적 체험기회의 장으로서 유학을

의미화하고 있는 경우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이러한 경향성은 주로 서구 출신 유학생들의 의미화에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국과 한국과의 역학관계에 대한 판단과 전제가 아시아 출신 유학생들과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영어교사로 일본과 한국에서 일하다가 유학을 결심한 미국 출신인 Alex의 이야기와 독일 출신인 Brian의 언설은 이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

“일본에서 일생의 벗(lifelong friends)을 다수 사귀면서 매우 멋진 시간을 보냈으나, 2년이 지나자 나에게도 변화가 필요했다. 그 즈음 겨울방학 때 잠시 한국을 방문하였는데, 그때 매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리하여 일본에서 2번째 계약이 끝난 후 새로운 도전 삼아 한국에서 살 것을 다짐하였다. (한국에 들어와)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다시 한번 영어 교사 일을 하게 되었다. 나는 예전부터 동아시아학을 공부하려고 계획하였는데, 그렇게 된다면 본국(미국)이 아닌 외국에서 석사 과정을 밟는 것이 더 의미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또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탓에 한국을 완전히 경험하지 못했다고 느꼈다. 1년씩이나 살았던 나라에 대해 아는 바가 너무 적다는 생각에 약간의 죄책감마저 들었다. 그리하여 일반적인 국제관계 학위 과정이 아닌 한국과 동아시아학을 공부하기로 다짐하게 된 것이다.”(Alex, 미국)

“학부전공 중 하나가 한국학이었는데, 한국에 대해 꾸준히 공부하고 함께 동아시아학에 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한국으로 유학을 왔다. ……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었던 동시에, 차후에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 한 분야에만 고정되고 싶지는 않았다. 또한 나의 과거의 “취미” 였던 것을 연장시켜 경제와 경영부분을 공부해보고 싶었다.”(Brian, 독일)

Alex의 이야기는 한국유학은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신의 성장을 삶의 기회로 의미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 출신인 Brian도 마찬가지다. 경

제와 경영공부에 대한 학문적 관심만이 유학결정의 이유가 아니라 다채로운 삶의 기회의 장으로 한국유학을 의미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해외유학의 다변화와 대중화로 인해 경쟁력있는 글로벌 학력자본 외에도 매우 복합적으로 해외유학이 의미가 변화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한편, 남미 국가 출신인 Christina의 경우는 이러한 서구 출신의 문화적 선택과 맥이 닿아 있으면서도 서구 국가 출신과는 다른 지형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내가 한국유학을 가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은 ‘얼토당토 않은 생각(crazy thought)’으로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아시아, 특히 한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요한 이주대상지(prime destination)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내 생각을 알고 난 후에는 결국 몇몇은 내 생각을 인정해주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우리 어머니께 내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개인적으로 나는 한국이 그만큼 독특한 이주대상지(unconventional destination)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보수적인 곳에서는 아시아와 한국을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의 여정이 나에게서는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내 친구들과 가족들과 떨어져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내가 살던 곳에서 일반적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아무도 가지 않을 것 같은 곳에서 사는 일이기 때문이다”(Christina, 남미)

Christina에게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었던 한국행은 새로운 사회와의 소통에 대한 욕망 때문이었다고 한다. 한국에 오기 전 핀란드와 스페인, 일본 등 다양한 나라에서 수학할 기회를 얻으면서 문화간 교육(intercultural education)에 매료되었고, 그러한 적극적인 세상과의 소통에 대한 욕구가 가족들과 주위의 만류를 물리치고 한국을 선택했다고 한다. 그의 언설은 대학생들의 유학이 글로벌 엘리트들의 이주로서 고등교육 경쟁시스템 속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경쟁에서 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한 방면에서 향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서 주목된다. 이처럼 유학생들의 변은 학력의 글

로벌 위계속에서 국가간 역학관계에 의해 다르게 출신국가에 따라 구별되는 다양한 의미화를 보여주고 있다.

2. 이방인의 통과의례(rite of passage)로서의 적응과 장애기제

어떤 동기에 의해서 유학을 결정하였든 새로운 사회로의 진입과 정착과정은 개인적 차원에서 다양한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유학생들의 정착과정은 이들의 개인적인 특성과 조건들에 따라 상이하게 드러나기도 하지만 다른 사회로의 적응과 유학생이라는 특성은 적응과정과 생애기획에 있어서 공통점을 지니기도 한다. 새롭고 낯선 환경에서의 외로움으로 인한 두려움, 언어적 제약에 따른 장애와 이로 인해 파생되는 자존감 문제는 가장 두드러지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이주자들이 새로운 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일종의 통과의례(rite of passage) 중 하나이기도 한다 (Murphy-Lejeune, 2002).

“첫 학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5킬로그램이 빠지고 매일 울었어요. 집이 그림고, 한국에서 겪게 되는 낯선 것들에 둘러싸여 하루하루를 버티자니 생활이 통제가 안 되었어요. …… 내가 오기 전에 생각한 것과는 달리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외롭고 힘들었어요. 내 성격과 내 나이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국어가 능통하지 못한 것도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자신감도 부족하고, 내가 실수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오해를 할까 봐 두렵기도 합니다.” (Giang, 베트남)

일반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낯선 공간으로의 이동은 자신에게 익숙한 공간과 의지할 수 있는 인적 관계의 단절을 의미한다. 이러한 단절에 대한 경험은 개인에게는 새로운 환경과 어떻게 협상하는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할 수밖에 없게 한다. 베트남 출신인 Giang은 기혼이고 자녀가 있음에도 국제적인 커리어를 쌓기 위해 한국유학을 결심한 경우다. 34세라는

늦은 나이와 언어적 제약은 그녀가 한국대학에서 맞닥뜨린 가장 힘겨운 장애기제다.

한편, 연구대상자들은 한국생활 적응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으로 폐쇄적인 한국문화와 한국친구와의 관계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특히 한국인들의 강한 민족의식과 끼리끼리 문화는 이들이 한국친구들과의 거리감을 만들어 소외감, 위축감 등의 감정으로 연결되기도 했다고 한다.

“나는 한국인들이 외국인들을 반가워하지 않고 호의적이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는 한국인들이 매우 따뜻하고 공손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인상도 바뀌었어요. 한국 사람은 외국인들에게 매우 차갑고 인정없게 대하며, 가끔은 외국인의 존재를 귀찮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속 학과]에 있는 한국 학생들은 대체로 착하고 친절하지만, 여전히 왜 외국인들과는 시간을 함께 보내려 하지 않는지 궁금해요. 그들에게 물어보면 언제나 바쁘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다는 인상만 받을 뿐이죠. …… 왜 같은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만 어울리는지, 왜 다양한 나라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지…… 내가 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의문이에요.” (Christina, 남미).

“한국인은 일반적으로 외국인을 환영하는 것 같은데, 그들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데는 인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인의 민족주의가 매우 강한데 ‘우리’라는 단어를 늘 사용하는데…… 그건 한국인은 우리고 외국인은 너희라는 뜻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당신은 우리의 그룹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선언처럼 들려요” (Mei-Xing, 중국)

위의 두 이야기는 한국의 끼리끼리 문화가 갖는 폐쇄성이 외국인들에게 소외감을 갖게 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집단주의와 연고주의가 강한 한국사회의 특성이 외국인들을 대상화하면서

일시적인 호의를 보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동료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매우 인색하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이야기이다. 이러한 유학생들의 경험은 정착과정에서 한국인들과의 관계형성에서 어려움으로 연결되고 자신들의 본국 커뮤니티나 유학생들끼리만 어울리는 경향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이주자들이 자신들의 자존감을 보호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위해 주류사회에 속한 친구들보다 인종적, 민족적으로 비슷한 또래집단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 주류와는 거리를 두는 방식을 취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Quillian & Campbell 2003; Oetting 1992; 이민경 외 2009).

이러한 비판적인 유학생들의 내러티브는 한국사회 혹은 친구들과 거리두기를 통해 자신들을 보호하려는 메카니즘의 하나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시선은 내부자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는 한국사회의 모습을 외부자의 시선에서 보여줌으로써 대학문화를 비롯한 한국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다문화·이주의 시대라는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유학 국가와 대학의 환경이 유학생들의 적응과 학업성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Sherry et al. 2010; Gu et al. 2010)에 비추어 보면, 한국사회와 한국인의 폐쇄적인 문화가 유학생들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3. 한국 대학 학습 경험 평가

외국인 유학생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대학생활 경험은 외국인 학생으로서 낮은 학업공간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뿐 아니라 한국대학구조 시스템과 수업방식, 교수와 학생과의 관계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드러내준다. 본국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거나 다채로운 사회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이들은 과제가 많거나, 같은 수업을 듣는 동료들과의 경쟁 등 학업의 부담을 언급하기는 하였지만, 학업수행자체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반면, 한국 대학수업방식과 학교문화

를 본국에서의 경험과 비교하면서 비판적으로 평가하거나, 본국의 대학교와 수업방식에 대한 시사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다. 아래의 인용은 이러한 사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대학이 공적 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생각해볼 때, 감정적으로 친해지게 되면 한편으로는 학문적으로는 멀어지게 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교수님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난 후에 특정 사안에 대해 교수님께 도전을 하겠는가?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내 성적의 20%가 수업의 참여도로 평가되는데, (이 방법이) 객관적인 점수 평가가 어렵고 쉽게 개인적인 선호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내가 수업시간에 어떻게 비판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겠는가? 또한 시험이나 레포트에서도 익명성이 보완되지 않아 감정에 치우친 평가가 있을 수 있다는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나의 영국 본교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에서의 정점은 논문이다. 그러다 보니 강의에서도 일반적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헌을 조사하고 접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이는 자연스럽게 학부와 대학원 과정에서 학술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게 된다. 그에 반해 00대는 논문을 쓰는 과정에 매우 실용적인(practical)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아마도 졸업 이후에 특정 영역에서 일을 하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일 것이다.” (David)

영국중산층 출신인 David는 매우 다채로운 교육적 커리어를 가지고 있다. 이민자 가정이 많은 학교를 다닌 경험으로 인해 자신과 다른 다양한 문화와 계층에 관심을 가진 계기가 되었고, 고등학교 때는 중산층자녀들이 주로 다니는 전형적인 사립학교에 다니다가 대학에 진학하여 Department of Peace Studies에서 공부하며 만난 외국인 친구들로 인해 아시아에도 관심을 갖게 되면서 한국에서 공부할 기회를 갖고 싶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대학 생활과 수업문화가 본국과는 많이 달라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고, 한국대학 교육방식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아래에 인용하는 학생들 역시 본교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대학경험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었다.

“대학의 교수님들에 대해 말해보자면, 나는 늘 마지막 순간에 일을 하는 한국인들의 방식이 맘에 들지 않는다. 어떻게 교수님께서는 2일 만에 숙제를 해오라는지, 1일 안에 발표를 준비하라고 할 수 있는지. 개인적으로 나는 발표나 과제를 여유 있게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고 싶은데, 한국 특유의 대학 생활에 적응하기가 매우 어렵다. [본인 출신인 남미 국가]에서는 (교육에 있어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시간을 들이는 논술 문제에 더 중점을 둔다. 암기는 반복하는 것으로 여긴다. 반복을 통한 기억은 지식 획득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이 적은 것을 가지고 기계처럼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문제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내는 것이다.” (Christina, 남미)

“내가 한국에 오기 전에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중국의 교육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공부해본 결과 한국의 교육과 대학 시스템이 개인의 흥미와 계획에 기반하여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하는 등 훨씬 개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등, 또한 교수님들은 단순히 책상 뒤에서 가르치는 일만을 하지 않았다. 우리의 친구, 우리의 삶의 교사가 되어 우리를 언제나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국 교육이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내게는 매우 소중한 경험이었다.” (Jiao, 중국)

Christina는 한국대학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반면 중국 출신인 Jiao은 한국대학경험을 매우 자유롭고 선진대학문화로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 생활경험에 대한 주제에서 동질적인 학교문화적 요소가 많은 아시아 유학생과 서구출신 유학생들의 언설은 매우 명시적으로 구별되고 있어 주목된다. 교수와 학생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서구 출신 유학생들은 사적으로 교수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한국대학문화를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교수-학생간의 개인적인 관계가 공적인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



의 인정주의를 매우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반면, 중국 등 아시아 유학생들은 교수들과 학생들 간의 친밀감을 매우 민주적인 교수-학생과의 관계로 파악하면서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각국의 선형적인 문화적 경험이 현재 한국대학생활을 평가하고 인식하는 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한국대학에 대한 평가는 매우 상대적이며 이들의 경험으로 모두 한국대학구조를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u et al.(2010)이 지적한 것처럼 유학 초기의 어려움이 상이한 문화와 사회적 환경에 대한 적응 문제보다는 상이한 교육 문화(academic culture)에 적응하는 문제가 더욱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보다 열린 한국대학교육시스템과 대학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성찰을 필요로 함을 암시한다.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한국대학의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해외 유학생들의 한국 유학선택과 대학생활 경험을 통해 이들의 유학에 대한 의미화와 한국적응 경험을 분석하고 이들이 어떻게 한국대학에서 자신들의 삶을 구성해나가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의미화 하는지를 고찰하였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유학선택과 경험에 대한 연구결과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대상자들은 보다 경쟁력 있는 해외 학력자본을 위한 이동이라는 전통적인 유학의 흐름 속에서 한국유학을 의미화하는 경우와 문화적 경험을 통해 유학을 선택하는 새로운 흐름으로 대별해 볼 수 있었다. 전자가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 유학생들의 변을 드러내준다면 후자는 서구 국가 출신들의 유학의 변을 대표한다. 이는 출신국가에 따른 해외 유학에의 욕구

와 의미가 구별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유학생들의 지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중국 등 아시아 출신 유학생들에게도 문화적 체험 또한 글로벌 학위 못지 않는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고, 서구학생들에게도 아시아 혹은 한국 전문가로서의 스펙을 쌓기 위한 유학동기도 동시에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의미화에 대한 무게중심이 이 두 집단 사이에 매우 명시적으로 구별되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한국대학생활경험은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회로 의미화하기도 하지만 한국대학문화와 한국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두드러졌다. 일반적으로 이주자들의 적응과정은 자신이 원래 속한 집단의 문화와 가치가 이주해온 문화와 다를 경우 갈등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Padilla 1980). 이처럼 유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겪는 장애기제들이 일종의 심리적 방어기제로 전환되면서 비가시적인 전략으로서 거리두기와 비판적 인식이 작동되었을 수 있다(Gaulejac & Taboada-Léonetti 199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경험적 보고는 글로벌 시대의 교육국제화를 추구하는 한국대학이 성찰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는 향후 한국대학이 유학생들을 단기적 관점에서 도구적으로 사유할 것이 아니라 보다 열린 대학문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사회에서 이미 매우 중요한 인구구성을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다문화저변을 넓혀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다각적인 학문적·정책적 관심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유학선택과정과 정착과정, 대학생활, 향후진로 전략 등 다각적인 연구관심을 필요로 한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유학선택과 정착과정이 이들의 출신국가와 문화적 특성, 유학 이전의 경험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에 주목한다면 이들의 출신국가와 문화적 성격에 따른 특성과 교육과정경로 등에 대한 심층적 연구도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

도 가져가야 할 것이다.

[투 고 일 : 2011년 5월 29일]

[심사완료일 : 2011년 7월 19일]

[게재확정일 : 2011년 7월 19일]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08. 외국인 유학생 정책 관련 보도자료(8월 4일).
- 권양이. 2008.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대학 초기적응에 관한 질적 탐색.” 『한국 교육학 연구』 14(1): 301-333.
- 김옥희 · 최병호 · 이은정 · 이대홍. 2008. “해외 유학생 유치에 관한 연구: 신흥대학과 산동관 광대학 간의 교류를 중심으로.” 『논문집』 31: 247-282.
- 김지훈. 2010. “싱가포르의 교육 산업화와 교육 이주.” 『동아시아 브리프』 5(4): 46-51.
- 안영진 · 최병두. 2008.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의 이주현황과 특성: 이론적 논의와 실태 분석.”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1(3): 476-491.
- 이민경. 2008. “대학생들의 교육경험 담론 분석: 입시교육과 진로경험의 의미화를 중심으로.” 『교육문제연구』 31: 79-102.
- 이민경 · 김경근. 2009. “이주근로자가정 청소년들의 적응전략.” 『교육사회학』 19(2): 107-132.
- 이민우 · 박창남 · 이훈병. 2008.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 만족도 제고를 위한 한국어 강의평가 문항개발과 중요도 분석.” 『이중언어학』 38: 369-388.
- 정연순 · 이민경. 2008. “교사들이 지각한 잠재적 학업중단의 유형과 특성.” 『한국교육』 35(1): 79-102.
- 조혜영. 2002. “해외 동포 모국 수학생에 관한 연구: 중국 동포학생들의 모국관 및 민족관을 중심으로.” 『재외한인연구』 12(1): 65-114.
- 조혜영. 2003. “한국체류 중국유학생들의 한류와 한국이미지 인식에 관한 연구.” 『교육사회학 연구』 13(2): 209-234.
- 주현준. 2007.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략 수립을 위한 요구 분석 :AHP 기법을 이용한 국립 S대학 사례 연구.” 『教育學研究』 45(3): 83-106.
- 주회정. 2010.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대학 학습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교육문제연구』 36: 135-159.
- 행정안전부. 2008. 국내 외국인 관련 보도자료(8월 6일).



- Bodycott, Peter, 2009. "Choosing a Higher Education Study Abroad Destination: What Mainland Chinese Parents and Students Rate as Important" *Journal of Research in International Education* 8(3): 349-373.
- Bourdieu, P. 1980. *Le sens pratique*. Paris: Minuit.
- Bourdieu, P. 1996. *The State Nobility: Elite Schools in the Field of Power*. Oxford: Polity.
- Chen, Liang-Hsuan, 2007. "Choosing Canadian Graduate Schools from Afar: East Asian Students' Perspectives," *Higher Education* 54: 759-780.
- Dubar, C. 2000. *La crise des identités : l'interprétation d'une mutation*, Paris: PUF.
- Dubar, C. 1991. *La Socialisation, construction des identités sociales et professionnelles*, Paris: Armand Colin Éditeur.
- Gaulejac(de), V. and I. Taboada-Léonetti, 1994. *La Lutte des places*, Paris: Desclée de Brouwer.
- Giddens, A. 2003. 『현대사회학[Sociology]』(김용학 역). 서울: 을유문화사(원전은 1982년에 출판).
- Gu, Qing, Michele Schweisfurth and Christopher Day, 2010. "Learning and Growing in a 'Foreign' Context: Intercultural Experiences of International Students," *Compare: A Journal of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Education* 40(1): 7-23.
- Hirsch, F. 1976. *Social Limits to Growth*, London : Routledge & Kegan Paul.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05. *World Migration 2005*. Geneva: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 Van Manen, 1990. 『체험연구 : 해석학적 현상학의 인간과학 연구방법론』. 신경림 · 안규남 옮김(1994). 서울 : 동녘.
- Marginson, Simon, 2006. "Dynamics of National and Global Competition in Higher Education," *Higher Education* 52: 1-39.
- Marginson, Simon, 2008. "Global Field and Global Imagining: Bourdieu and Worldwide Higher Education,"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29(3): 303-315.
- Murphy-Lejeune, 2002. *Student Mobility and Narrative in Europe: The New Strangers*.

- London: Routledge, Place of Publication.
- Paille P. & Mucchielli A. 2003. *L'Analyse qualitative en sciences humaines et sociales*. Paris: Armandcolin.
- Quillian, L. & Campbell, M. E. 2003. "Beyond Black and White: The Present and Future of Multiracial Friendship Segreg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8: 540-566.
- Rosenthal, Doreen Ann, Jean Russell and Garry Thomson. 2007. "Social Connectedness among International Students at an Australian University." *Social Indicator Research* 84: 71-82.
- Sam, David Lackland. 2001. "Satisfaction With Life among International Students: An Exploratory study." *Social Indicators Research* 53: 315-337.
- Sherry, Mark, Peter Thomas and Wing Hong Chui. 2010. "International Students: a Vulnerable Student population." *Higher Education* 60: 33-46.
- Walker, Patricia. 2010. "Guests and Hosts - the Global Market in International Higher Education: Reflections on the Japan-UK Axis in Study Abroad." *Journal of Research in International Education* 9(2): 168-184.
- Yeoh, Brenda S. A. 2007. "Singapore: Hungry for Foreign Workers at All Skill Levels." Migration Information Source (<http://www.migrationinformation.org/Profiles/display.cfm?ID=570>)(검색일: 2010. 10. 3).

ABSTRACT

A Qualitative Study on Choice of Study Destination and University Life Experiences of International Students at a University in Seoul, Korea: Focusing on Narratives of Postgraduate Students

Jeehun KIM

HK Assistant Professor

Institute for East Asian Studies, Sogang University

Min-Kyung LEE

Assistant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aegu University

100

지훈-김

This qualitative study investigates choice of overseas educational destination, university life experiences and future plan of international students enrolling at a university in Seoul, Korea. Previous studies on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by taking either too macro or instrumental approaches, have often failed to provide micro-level in-depth understanding on this new sojourner group, which is increasingly important in Korea. This study conducted autobiographic essay analysis and in-depth interview methodology. In-depth interviews with eleven participants from China, Southeast Asia and others, mainly Western, countries, were conducted from October to November 2010.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their choice of Korea reveals aspirations of students to acquire global capital as well as to have cultural experiences and opportunities in the globalizing world. The former was more evident among students from China and Southeast Asia, whereas the latter was more so for

students from the West. Secondly, their university experiences in Korea reveal their critical perspectives. Thirdly, evaluation of academic life at a Korean university shows both critical and favorable comments. Their evaluation shows their judgement, using their countries of origin for a reference point but also reveals their views on Korean way of interaction between students and professors in Korea.

Key Words international students, China, Southeast Asia, university life experience, globalization, motivation for study abroad, study abroad experience

